

학생의 입장에서

임상교육 또한 대학 간호교육에 있어서의 많은 제반 문제들이 이미 논문이나 「세미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아왔고 또한 「대한간호」 및 기타 학회지를 통하여도 많은 글들이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좋은 글과 말씀이 있기에 실지로 저희가 임상실습에서의 문제점등을 느낀다고 해도 그 범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 감사히 생각하여 어찌면 반복될 수도 있고 강조될 수도 있는 입장에서 상기한 전제를 놓고, 대학에서 현재 임상 간호교육을 받고 있는 위치에서의 제가 느끼는 몇가지 점들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직 학생이고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점은 간호학생뿐만 아니라 어느 대학생들도 실습지에 나가면 느끼게 되는 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3학년 때부터 「캡」을 쓰고 병실 실습을 나가면 병실의 고질화된 분위기 속에서 배우는 場이라는 사실을 있을때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실 분위기에 휩쓸려 적응을 배우기에 급급한 것도 같습니다. 이에 적어도 대학생으로서 창의력 내지는 지도력을 기르는 교육을 받고 있다는데 있어 회의를 느끼며 자부심을 갖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첫째 이유가 실습지에서의 학구적인 분위기의 결핍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부족된 물품으로, 배운 지식을 활용 하기에는 너무도 동



떨어진 실정인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현 국가적 입장에서 볼때 받아 들여야 될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커다랗게 실망하는 점은 현 임상에서 실무하는 간호원으로 부서의 실망감이 큰 것 같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호원들의 긍지가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의사의 처치의 보조에 불과한 간호, 질병 위주의 간호가 너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 간호원들이 자신의 발전, 간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이 매우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점은 부장이나 기타 태도에서도 나타낸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으며, 그들이 우리의 선배라는 생각을 하면 실망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간호는, 특히 의료는 개개인이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팀」의 한 요원으로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배웠는데 실제로 「팀」요원으로서의 위치를 찾아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둘째로, 앞서서도 잠깐 나온 이야기이지만 질병간호에서 천인간호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우리 자신이 전 인격을 다룰 수 있는만큼 충분히 성장되어야 하고 인격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환자를 실습 대상자가 아니라 그들이 간호를 받아야 하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점을 생각할때 우리가 갖는 방향감이나 압박감이 큰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엔 자신감을 잃고 열등의식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의 조언과 인간적인 교육이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에 전인간호에 앞선 학생들의 느끼는 문제점을 상의해 줄 수 있는, 간호 지식에 앞선 인간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셋째로, 위의 점에 덧붙여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과 연결되는 교육이념 속에서 교육을 받고 싶은 점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은 교수님들로 부터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특히 대학에서는 어느정도 인격적인 면에서 틀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의 틀이 서지 않을때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이를 형성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은 졸업 후에도 어느정도는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학문과 서적이 쏟아져 나오는 요즘은 저희가 배우려는 자세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대학에서 완속된 하나의 간호원, 또는 간호계의 지도자가 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을 키우고 나오는 것인데 실제로 이 가능성을 얼마만큼이나 키우고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그 많은 졸업생 중에서 몇이나 간호의 발전과 향상된 간호원으로서의 자격을 갖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학생으로서의 욕심은 현실에 급급한 교육, 오늘로서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내일과 연결되는 교육을 받고 싶으며, 여기에는 충분한 인간적인 교류가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병실 실습후의 모임이나 회의에서, 사례의 연구 또는 일반 지식에 관한 회의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이런 간호계의 문제점들을 서

로 이야기 하며 의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무척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의 지도자를 기르는 대학교육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한 후에 세부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듯 합니다. 저희가 원하고 또한 간호계에서 원하는 것도 대학 교육에 있어서는 새로운 지식을 여러 환경구조에 적용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사고와 간호 지도자로서의 준비과정을 하는 교육, 즉 너무 현 지식에 매달리는 교육은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간호계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도 간호를 하는 이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안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열의가 생기며 간호학을 아끼게 될 것 같습니다.

넷째로, 전문 간호단체와의 유대아래 현 실정에 맞는 교육을 받고 싶은 점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의 지식은 구미 선진국을 위주로 한 내용이기때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아직 꿈이 많은 학생이기때 이로 인한 좌절과 실망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학생때 부터 학교 선생님들과 간호직에 종사하는 분들로 부터의 실무 교육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실질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간호 전문단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의료「팀」의 한 요원으로서의 역할을 배움은 횡적인 조직내에서의 교육이라 하면, 이는 간호 전문 단체내의 종적인 조직속의 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학생으로서나마 현 간호단체의 방향을 인식하고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간호를 배우며 이에 협력할 수 있음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로 학생들에게는 전문지인 「대한 간호」마저도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비치된 것 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기에 학생들에게도 협회지를 받을 수 있는길이 열렸으면 합니다. 실제로 학생들 간에는 현 간호 단체에서 무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점은 특히 고려되었으면 합니다.